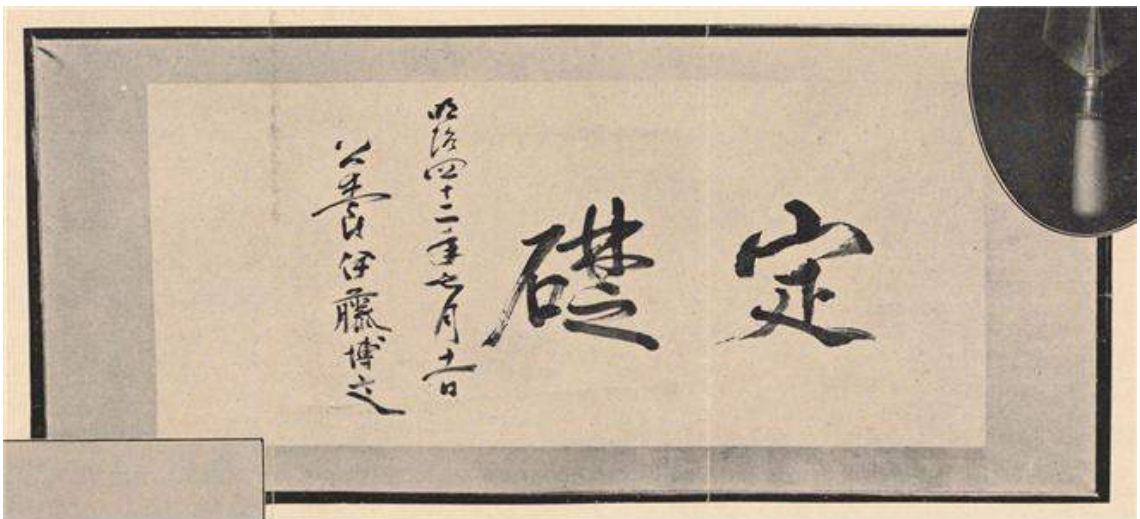


(붙임)

## 사진 자료



사적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현재의 정초석  
·현재 정초(定礎) 글씨가 남아 있음. 당시 정초 일자와 서명은 지워져 있고,  
후에 “융희 3년 7월 11일”(1909.7.11.)이 새겨져 있음



일본 하마마츠시 시립중앙도서관/하마마츠시 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  
[명치 42년 7월 11일(1909.7.11.) 공작이등박문]



RECEPTION ROOM

The picture on the wall is that of Prince Ito by whom the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Bank of Chosen was first conceived, and the corner stone of the present building, bearing his hand writing and shown in the lower left corner, was laid. The bronze statue below the picture is that of Baron Shibusawa who surrendered, as President of the Dai Ich Ginko, his banking business in Korea in favour of the Bank.

1918년 조선은행이 간행한 영문잡지  
(Economic Outlines of Chosen and Manchuria)

\* 리셉션 룸

- 벽에 걸린 사진은 조선은행 설립계획을 첫 번째로 계획한 이토의 사진  
그의 손글씨로 새겨진 왼쪽 하단부의 정초석은 현재 건축물에도 놓여있다.



왼쪽 하단부의 정초석 부분 확대

·정초(定礎) 원편에 “명치 42년 7월 11일 공작이등박문”이 새겨져 있음